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 
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0.

발 의 자 : 강경숙·김준형·정춘생  
김문수·김준혁·박은정  
백승아·장종태·황운하  
문정복·정을호·서왕진  
신장식·김선민 의원  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 2024년 9월,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‘평화의 소녀상’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.

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
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4항 신설).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 
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는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의 실태를 파악하고, 조형물등의 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~ ③ (생    략) <u>&lt;신    설&gt;</u>	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는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의 실태를 파악하고, 조형물등의 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</u>